

軍, 호우 피해지역 복구 '패키지 지원'

중장비·급수·의료·방역 등 통합
드론봇전투단 투입 실종자 수색
접경지역 철저한 지뢰탐색작전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 대민지원이 쉽표 없
이 전개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패키지화'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국방부는 12일 "인력과 공병 장비 위주
지원에서 나아가 이제는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해 생활의
모든 면이 불편하지 않도록 패키지화해 지
원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패키지화' 지원이란 피해 지역의 토사 제
거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굴삭기·도저 등 중
장비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수 차량·기동형 세탁 및 건
조 장비·침구 세트, 구급차를 포함한 의료,
소독과 방역 장비 등을 통합해 지원하는 것
을 말한다.

우리 군은 연이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
해를 본 지역의 복구가 시급함에 따라 현행
작전태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날까지 연인원 2만5000여 명
과 굴삭기·포클레인을 포함한 장비 1600여
대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대민지
원을 하고 있다.

이날도 폭우로 상판이 내려앉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양지교 인근 주민들의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육군3공병여단이 보유하고
있는 간편조립교를 지원해 설치했다.

특히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의암댐에서
선박 전복으로 실종자가 발생하자 기존의
헬기 및 수색인력 지원에서 탈피해 드론봇
전투단(드론 9대, 운용요원)을 공중수색
에 투입하는 등 군이 보유한 최첨단 장비
까지 지원하고 있다.

접경지역인 파주·연천·화천·인제·양구
·철원 등 6개 시·군에서는 폭우로 인해 복
측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목함지뢰와 폭
발물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뢰탐색작전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이전에 군

지원 소요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최단 시간
내에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강
원도청을 비롯한 53개 지자체에 군 협력관
도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마가 종료되
고 본격적인 복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
는 이달 중순부터는 지자체 자체 복구가 제
한되는 지역에 가용한 인력·장비를 상황에
따라 '패키지화'하거나 '맞춤형'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
는 만큼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장병들은 작
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부대 복귀 후 개
인소독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
시했다. 임채무 기자



12일 육군3군단 공병여단 장병들이 최근 집중호우로 마을과 외부에 잇는 양지교 상판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고립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 작전용 교량인 '간편조립교'를 구축하고 있다. 인제=조종원 기자

고립 주민 위해 '간편조립교' 긴급 구축

육군3군단, 인제군 양지교 40m 연결
최대 24톤 차량 통행 가능 불편 해소

육군이 집중호우로 고립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 작전용 교량인 '간편조립교(MGB
·Medium Girder Bridge)'를 12일 긴급
구축했다.

최근 강원도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인근의 양지
교 상판 일부가 내려앉아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길이 120m인 양지교는 양지마을에 거주
하는 50여 명의 주민들에게 인북천을 건너
외부와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량이었다.

차량 통행 통제 이후 주민들은 기초적인
생활은 물론 농작물 출하, 가축 사육을 위한
사료 반입 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육군3군단은 즉시
인제군 및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

아 안전성을 진단했고, 지방자치단체(지자
체)에서 별도의 임시교량을 설치하기 전까
지 간편조립교를 구축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교량 구축에는 군단 예하 공병여단
장병 70명과 간편조립교 20교절, 차량 23
대, 전투장갑도저 등이 투입됐다.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려 가며 조립한 간편조립교는
양지교의 무너진 40m 구간을 연결했다. 이
에 따라 최대 24톤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해
져 주민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대민지원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게 됐다.

군단은 앞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안전운행
을 위한 속도 제한, 차량 통과급수 표지판
설치 등 교량 파손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순

찰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간편조립교는 기동로 상의 파괴된 교량이나
계곡 또는 대전차호 등의 간격을 극복하
는데 쓰이는 조립 교량이다. 특수 경합금
(고장력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돼 기존의
구형 M2 장간조립교에 비해 경량화됐고,
소수 인력으로도 구축이 가능하다. 총 통
과하중은 60톤으로 2단 조립식 보강재가
적용됐다. 육군에는 1991년부터 도입돼
주요 공병부대에서 사용 중이다. 우리 군
은 길이가 52m에 이르고 가설에 필요한
소요 인원과 시간을 한층 줄일 수 있는 신
형 전술교량을 2024년부터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신형 전술교량은 우리 군의 전
시 작전 지원 역량과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능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간편조립교 구축을 현장에서 지휘한 3공
병여단 김대현(중령) 교량대대장은 "평소
전투준비태세의 하나로 교량 구축 교육훈
련을 반복 숙달해 왔기에 신속하고 안전한
교량 설치가 가능했다"며 "집중호우 피해
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
감을 밝혔다.

양지마을 박상형 이장은 "농번기에 다리
가 끊어져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빨리 복
구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주민들
을 위해 노력해 준 장병들에게 정말 감사하
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상윤 기자

■ 편집=김노형 기자